

<2015년 4월 27일 새벽 정리 말씀>

네, 다시금 새벽이 돌아왔습니다. 온 지구촌에 있는 섭리사에 사는 하늘의 사랑하는 신부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답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데에 답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집에서 잠만 자면 답을 못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사는 사람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지요. 그 차이는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새벽에 일어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선악에 서 있습니다. 인생은 선악과와 같아서 선으로 지향할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딱 먹으면, 늘 하나님 편으로 늘 기울어집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이렇게 오장육부의 기구가 돌아갑니다. 버릴 것은 나와집니다. 공장이 돌아가니까 폐수는 버려지게 우리 지체의 기구가 돌아갑니다.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못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루가 다 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깨지면 내일이 또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아침에 깨닫고 알았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힘든 새벽을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언 하나 해 주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감동이 돼야 무슨 말씀이 들어와도 내가 감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감동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말씀을 할 때 쭉쭉 들어옵니다.

“아 맞아. 그렇다. 아멘!” 그냥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준비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알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한 마디 우리에게 해 주었다는 것이, 그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큼니다.

이것은 방금, 한 3분 전에 온 말씀입니다.

“어린이와 대화하면 어른도 어린이가같이 된다.” 했습니다.

“어린이도 어른과 자꾸 대화를 하면 어른스러워진다. 정신과 행실이. 너희가 하나님과 대화해 봐라.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을 때 인간이 무지하게 되었고, 무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선지자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서로 상호 교통했을 때는, 그때 시대는 심판치 않았느니라.”

15살, 16살에 하나님의 자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문 쓴 것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막

쓰지 않고, 내 개인이 깨닫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런 자문으로 계속 하나님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지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려면 항상 큰 책을 본다고 했습니다. 큰 책, 성인들의 책을 본다고 했습니다. 큰 자들의 책인 선지자의 책이요, 메시아의 책이요, 하나님의 책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본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잠언을 보면 “앉아서 인생 구상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실천하며 가다보면 너 구상한 것이 잘못되었나, 잘 되었나 부닥치면 안다. 일은 부닥쳐봐야 된다. 앉아 구상할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가다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만나다보면 거기서 또 일이 된다. 구상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 갈 길로 가기 때문에 못 만난다. 구상만 하지 말고 쭉 가라. 그러면 그 사람과 부딪혀서 답이 되어서 또 간다.” 두 번째의 잠언은 그런 묵시를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받아본 사람, 겪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환난 당한 사람을 알고, 옛날 환난 당한 것과 핍박당한 것을 알지 안 받아본 사람은 이론적으로만 안다. 이론적으로만 알면 그만큼 사람이 뒤쳐진다.”

여러분들 교회에 올 사람들은 여러분들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나, 여러분 센터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오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가거나 미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았으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선생님도 전도를 많이 해서 생명을 살려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의 생명을 늘 지켜 주시고, 생명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관리하려고 여기서 지구상의 말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계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므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희망도 많아지고, 소망도 많아졌습니다 생명을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하라. 이것이 구원자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일이다. 구원자, 메시아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구원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일이다! 신앙의 자손들이 번창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당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번져가니까 계속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또 왔을 때 얼마나 희망스럽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소망이 그것을 해야만이, 전도해서 생명을 관리하고 소망을 이루어야 여러분들이 기쁨, 보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구상한 것이나, 여러분들의 체제가 딱 됩니다. 가정적인 체제가. 하늘 신랑과 여러분들 신부들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까? “생명을 관리하고, 생명을 전도하고, 생명을 함께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크다. 그가 받는 축복이 심히 크다.” 그렇게 되면 많은 생명들이 자기 앞에 오고, 자기 주관권에 오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위력이 생기고, 모든 것이 생깁니다.

교회도 전도해서 새로운 인원들이 쭉쭉 들어와야만 역시 뭐가 생기지요? 서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 그래서 전도해서 모두 애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너무 큼니다.

바로 전도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결혼했으면 꼭 아기를 낳아야 된다.” 하면서 얼른 의사에게도 가보고, 이상이 있는가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니까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냥 자기만 마냥 즐겁게 교회 다니면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불행한 결과가 옵니다.

선생님이 이 섭리 시작할 때 계속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공적을 세우겠다.’ 하고 하나님께 무슨 공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 저 사명 주세요. 저의 사명이 뭐지요?” 하면 참으로 막연하지요. 아니, 생명을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래. 너, 그렇게 사명 달라고? 전도 100명 하도록 하라. 내가 1차 사명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면 그 다음에 편지가 오기를 “어떤 목회 하는 사명은 없어요?” 합니다. “그게 목회이지 않느냐? 나도 어느 교회를 주어서 한 것이 아니다. 한 명씩 전도해서 불어나니까 내가 이들에게 생명의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았느냐?”

복음을 넣을 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계획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넣을 때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확 내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보려고 일부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럴 때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그러니 빨리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초근초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1차는 전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하도록 하라. 지금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여기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모두 그렇게 하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듣고, 여러 종류의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시켜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어 모든 신약 역사를 보고, 이 시대를 다시 보면서 시대 말씀을 들었으니 모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들을 모두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니 모두 시험 들지 말고 하늘 뜻대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한 것을 그대로 받아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긴 자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나오게 되고, 신약에서 성약으로 나오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육과 같은 축복을 받으며,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으며, 여호수아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그 이스라엘 민족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환난을 이긴 자만이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 그리함을 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안녕! 빠이빠이!